

제목 : 가롯 유다의 죽음

본문 : 행 1:15-20

시작찬송가 : 330(새272), 337(새279), 509(새456)

헌금찬송가 : 486(새368), 492(새435), 495(새438)

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여명이었습니다.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. 그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새로운 일군을 뽑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 가롯 유다가 성경에 미리 증거된 대로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고 망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롯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수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. 우리는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. 겸손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이 영적 목마름을 따라가는 개인과 민족에게 복이 있습니다.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.

1. 가롯 유다도 부름 받은 제자였습니다.

- 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. 이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몸소 경험하였고, 말씀으로 양육 받았고, 여러 가지 권능을 받았으며,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.

마 10: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

눅 6:17-19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

- ②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. 그도 주님의 사역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. 그러나 가롯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. 그는 돈궤를 맡은 자였는데, 물질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

요 12:5-6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감이라

2. 가롯 유다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.

- ①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.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.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불어넣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.

요 13: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

- ② 마귀의 무기는 욕심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악한 자가 잘되고, 선한 일을 하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,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.

약 1:14-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

시 37:1-2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

갈 6: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

3.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.

- ① 베드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고 범죄 하였습니다. 그러나 베드로는 곧 목마른 심정으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.

마 26:74-75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

마 27: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

- ② 우리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. 그럴 때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.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.

눅 15: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

벧후 3: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

- ③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,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. 교만함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말고 말씀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.

벧전 5: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

시 33:18-19 여호와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

마 7:24-2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

오늘의 한마디 :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!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
| 1.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.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. | |
| 2.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. | 3.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. |
| 4.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. | |

명성교회